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호남의 친우에게 주다

贈湖南親友

병화로 칭왕하던 지난 해 일 기억하니
중간의 소식은 들 다 아득했네.
한 몸 숨겨 었드릴 곳 어디에도 없었지만
만 번 죽다 돌아오니 천명이 있고말고
난리 뒤라 들판에는 고목만 남아 있고
나그네 길 계절은 쓰르라미 우는 계절.
서로 만나 다시금 종망의 한 일어나니
술잔 앞 생수는 눈물 괴이라 하지 마소

재차 진강(鎭江)에 이르러 시골집에 제하다

再到鎭江 題村舍

그 옛날이 강머리 떠돌 적 생각하니
객지에서 흐르던 놀이를 벌였네.
들판 정자시 다 짓자 꽃은 자리 에웠고
산사에서 술을 깨니 달빛 누각 비웠었지.
7년간 모이고 흩어짐에 몸은 마치 꿈같은데
만사의 부침에 터럭은 시들려 하네.
말 타고 홀로 와서 옛 지취 찾으니
푸른 구름 방초 길에 사냥만 하였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우광 권이혁장관 에세이

이순신 장군 동상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李舜臣, 1538, 인종 1~1598, 선조 31)장을 모른다면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영웅 넬슨(Nelson) 제독보다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이 국제적 평가이다. 임진왜란 때 그의 눈부신 활약, 백전백승(百戰百勝)의 위대한 승리는 우리나라의 자랑이요, 영원히 계승되는 영광의 역사이다.

세종로 네거리에 우뚝 서 있는 충무공의 동상은 서울의 상징이요,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충무공이 오른손으로 지휘도를 잡고 있는 것이 이상스럽다는 이야기가 간단없이 들려온다. 오른손으로 칼을 든다는 것 패장(敗將)임을 뜻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관하여는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기도 했다. 이 동상은 1968년에 현재의 자리에 세워졌는데 그 목적은, 지금은 철거되고 없지만 예전에는 광화문 뒤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의 기세를 누르면서 민족정기를 회복하자는 데에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하늘에서 보면 북한산이 '큰대(大)' 형국이고, 조선총독부건물이 '일(日)' 모양이며 서울시청 건물이 '本(本)' 자를 본떠서 건립되어 '대일본(大日本)'을 말한다고 전해졌었다. 지금은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속설은 지나간 옛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칼집을 잡고 있으니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일수 있다는 설명이 따른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라고 불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기록에도 물론 없다. 인터넷은 또한 칼 손잡이 밑을 잡고 있는데 무인(武人)은 엄지손가락으로 칼자루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점, 칼자루가 땅에 닿아 있는데 무인은 언제나 칼을 땅에다가

펼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상을 빨리 재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동상을 제작한 사람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조각가인 김세중(金世中) 서울미술대 교수이다. 김 교수와 오랫동안 안 뜬독한 교분을 지내왔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인품을 잘 알고 있다. 신중하기 이를 데 없고, 작품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고증과 구상을 하는 것으로 이름난 예술가이다.

인터넷이 지적한 바와는 극히 거리가 먼 인물이다. 나는 어느 날 김 교수의 부인 김남조(金南祿) 시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정답을 얻었다. 전투용 칼은 왼손으로 잡고 칼을 뽑기 쉬운 자세를 취하지만, 지휘도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작 전에 박종화(朴鍾和)·이은상(李殷相) 선생 등 여러 분과 논의하여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지, 이 중요한 작품을 만드는 데 김 교수가 자기만의 실수라도 결코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은 주지되어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과 영국 넬슨(Horatio Nelson 1758-1805) 제독의 트라팔가르 해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순신 장군은 선두(船頭)에 나서서 지휘하다가 적의 유탄에 맞았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삼가라." 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군사들은 이 장군이 죽지 않은 줄로 알고 기운을 내어 분전하였으며, 물러나는 왜군을 대파하였다. 넬슨은 프랑스의 대규모 프랑스-에스파냐 연합함대를 완전히 격파시켰지만, 전쟁의 완승 막바지에 적의 자격으로 자신의 배 '빅토리아호'에서 "하느님께 감사하고...우린 우리의 임무를 마쳤다. "란 말을 남기고 전사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은 서울 세종로 네 거리에, 넬슨 제독동상은 런던 '트라

팔가' 광장에 우뚝 서 있다. 러·일 전쟁 후 승전국 일본에서 전승기념연이 열렸는데, 쓰시마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물리친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에게 "당신은 넬슨과 이순신보다 훌륭한 제독이다."라고 말하자 도고는 "내가 넬슨보다 위대한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이순신 제독에는 발끝에조차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서래공원

강북에서 강남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술원에 가려면 반드시 강남 가톨릭병원 앞을 지나가야 한다. 병원 앞 네거리 한 모퉁이 '서래공원(瑞來公園)'이 있다. 2002년에 만들어진 자그마한 공원이어서 별로 눈에 지 않았지만, 한번은 지나가다 보니까 말 동상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승용차를 세우고 공원에 가봤다. 공원 이름은 '서래공원'이며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정원이 인상적이었다. 어미말 세 마리와 새끼 말 두 마리의 동상이 마음에 든다. 말이 말피어서 나는 언제나 말에 친밀감을 느낀다. 이 작은 공원에 있는 다섯 마리의 말도 몹시 잘생겨서 보기가 좋다. (2008.6. 3)

공원에 붙어 있는 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서래공원 안내
이 공원은 서래공의 역사적 의미와 21세기 새로운 서초의 꿈을 담아 만든 도심 속 근린공원으로, 누구나 찾아오시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연과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휴식공간입니다.

서래공원에는 원래 이 근처에 있던 산봉우리를 재현하여 꾸민 서래동산과 서리서리 개울이 흐르던 서래골을 모티브로 한 숲의 정원, 서초구를 상징하는 꽃과 향기의 정원, 말 조형물과 함께 역동적인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변화하는 광경을 연출하는 물의 정원,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빛을 연출하는 빛과 시간의 정원 외에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이 가능한 체력단련 마당이 두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토지주 신동진과 (주)서울팰레스 호텔이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토지 및 공사비 일체를 부담하여 만든 공원이오니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깨끗이 이용하여 서초구민의 문화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名·詩·感·想

내 내이 八句 1932年生이니 日帝의 殘虐과 光復의 感激과 南北動亂과 政治發展 等 民族의 盛衰를 몸소 겪으면서 긴 歲月동안 보고 느낀 漢詩中 되새겨 불만한 것을 순서없이 本欄에 연재하여 함께 吟味해 보고자 합니다.

② 鏡浦臺



權洪燮 大京院 顧問

十二欄干碧玉臺
大瀛春色景中開
錄波淡淡無深淺
白鳥雙雙自去來
萬里歸仙雲外笛
四時遊子月中盃
東飛黃鶴知五意
湖上徘徊故不催

열두 난간 아름다운 벽옥같은 누대에
대영(강릉)의 봄경치가 거울 속에 열렸네
푸른 파도는 담담하게 깊고 얕음이 없고
흰물새는 쌍쌍히 자연스레 오고가네
만리해상 신성이 돌아오니 구름밖의 피리소리
사계절 풍류객은 달속에서 건배하네
동쪽으로 나는 학은 나의 뜻을 알아차리고
호수 위에서 배회하며 짐짓 머물러 주는 군

作者 鍾山 沈英婁

이 시는 예부터 세인의 입에 회자 되어온 명시이기에 소개한다. 둘째 연(承聯)의 녹파(綠波)와 백조(白鳥)는 빛깔로 마주하고 담담(淡淡)과 쌍쌍(雙雙)은 각 두글자씩 연주체(聯珠體)를 이루고 천심(淺深)과 거래(去來)로 재치있게 맞췄다. 다음 만리(萬里)와 사시(四時)는 숫자로 대하고 신선과 풍류객을 비교했으며 운외(雲外)와 월중(月中)은

이 말 의 시

구름에 쓴 편지



청하 권대욱

하에선 상념
시간이 누워있는 수목화 여백 같은 첫 마을에
가끔은 숨 가쁜 안개가 쉬어가고
경포 바다 조가비 노래가 날아오르면
먼빛 선자령에 핏빛 노을이
제 님아 지그시 눈감다
슬그머니 말라버린 이파리 및 내어 주는 날

연분홍 개미취가 소문 없이 숨어버린
빈 바람 가는 길엔 하얀 편지 보내준다

아직도 빗장 걸린 세월의 장막
비탈밭에 서성이던 허수아비는
예비하지 못한 첫눈을
제 가슴에 담담하게 채워넣고
영마루에서 비상하지 못한 적막은
구름조각으로 내 가슴에 떠다니고 있다.

개천절과 한글날

東雲 권혁용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10월에는 경축일과 각종 기념일들이 매우 많다. 1일 국군의 날, 2일 노인의 날, 3일 개천절, 5일 세계 한인의 날, 7일 사회복지의 날, 8일 재향군인의 날, 9일 한글날, 10일 임신부의 날, 15일 체육의 날, 문화의 날, 21일 경찰의 날, 24일 국제연합일, 25일 저축의 날, 28일 교정의 날 등이 다.

이 중 경축일인 개천절과 한글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 개천절(開天節) : 4대 국경일의 하나. 한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 10월3일. BC2333년 단군이 왕검성(王儉城)에 도읍하고 국명을 조선(朝鮮)이라 명명하였다고 하는 날이다. 1949년 10월1일 <국경일 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10월3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하였다.

이날은 정부에서 기념식연을 베풀어 단군을 추모하고, 개국을 축하하는 각종 기념행사가 벌어지며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대종교(大崇敬)에서는 음력 10월3일을 단군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개천일(開天

日)이라 하며 대제(大祭)를 지내며 이날을 기념한다. 대종교의 <삼일산고(三一神話)>에 따르면 '한배님이 갑자년(甲子年) 10월3일 백두산에 강림하여 1252년 교화시대를 지내고, 무진년(戊辰年 BC2333) 10월3일부터 치화(治化)를 시작하였다'하여 탄생한 10월3일과 건국한 무진년의 10월3일을 동격화 하여 대제를 지내며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국내외에서 이날을 꼭 기념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10월3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국경일로 하였다. 이 날은 정부에서 기념식연을 베풀어 단군을 추모하고, 개국을 축하하는 각종 기념행사가 벌어지며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교양

두 사람의 생각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식당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하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청소하던 청년이 이 모습을 보고 빗자루를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세상은 왜 이리도 불공평한가? 한 사람은 청소부가 되서 푸대접을 받고 있잖나!"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하느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이라네. 나는 글을 써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당신은 청소를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뿐!"

지승룡 (민토 소장)